내려다보시는 대신 대면하시게 하라

(에스라 3:1~13)

1.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3.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려다보시는 대신 대면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려다보시는 대신 대면하시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창조하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명확하게 못 박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함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백합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입히시며,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아서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명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민에게 하나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나 소명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명이나 소명을 마음에 품게 되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먼 나라로 간다든지 특정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칼뱅(Joan Calvin)에 따르면 구두를 고치고 빵을 굽는 것도 소명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민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내려다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대면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위에서 아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대면하시도록 하는 것이 선민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이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려다보실 때와 대면하실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에도 섭리와 통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평면상에서 대면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의 통치는 악함의 통제이십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들이기 위해서 하늘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서 땅의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면 나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면 건강을 담은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사업과 목회를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담고 있는 상태가 죄악입니다. 세상을 담으면 그 죄악으로부터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돈을 담았다면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건강을 담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가 곧 죄이고 악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악의 추진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임의대로 성취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 악의 상태로부터 나온 성취를 위한 추진력을 통제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되고, 목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자꾸만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의 힘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악과 추진력은 우리에게서 발생되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 관계에서 아무런 결실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매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내려오시게 됨을 뜻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질서가 만들어지고 결실이 있고 광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섭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에는 우리가 땅을 품음으로서 생겨난 악과 그 추진력을 통제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대면하시게 되면 비록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였을지라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힘이 발휘되고 창조적 이끄심과 섭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 가운데에 모셔서 우리 삶에서 대면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3개월 정도가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BC.1500년경에 일어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1차 귀환이 BC.537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 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서 번제를 행하게 됩니다.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포로귀환을 했는데 성전의 기초가 아직 놓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던 것인데 의미하는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단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종류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번제를 선택하여 7월 1~14일까지 아침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양을 잡아 드리고, 15~22일부터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1~45절에 번제와 연관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번제로부터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 대면하셔야만 하는데 포로귀환해서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칠십년 만에 오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비워둔 땅에는 이방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거할 처소만 만드는데도 족히 3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기록한 본래의 뜻을 찾아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상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경계가 될 국토도 없었고, 그 국토를 지킬 군사력도 없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어줄 아무런 사회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라의 기반도 없고 나라의 체제도 없고 공공기관도 없고 살아갈 농토나 장사의 터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연명했는지도 모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약속을 주신 상번제 사건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고자질하는 것 같고 일러바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비밀스러운 일을 윗사람에게 일러바쳐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오자 먹고 살 길이 막연하고 이방 민족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일러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상황을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일러바치기 위해서는 번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일러바쳐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려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이 세상이 담겨진 내 마음이 죄악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부흥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지 못한 상태가 죄악입니다.
번제의 어린양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담았던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마음이 죽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갖고 싶은 것, 소원했던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게 죄인 줄 알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번제단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세상이 담길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을 죽여서 먹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악 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

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감에 따라 비로소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내려오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삶의 현장을 대면하실 때에 그 현장이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였을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마음에 건강을 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인줄로 알고 건강을 소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오직 내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올라간 빈자리에 오셔서 문제가 생긴 내 몸을 대면하실 것입니다.
질병(disorder)은 말 그대로 질서(order)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에 말씀을 하시므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말씀의 창조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라도 사업을 마음에 담는 것이 죄악임을 알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사업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승천을 따라서 마음이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업장은 하나님이 오실 공간이 됩니다. 한 공간에 두 주체가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끄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힘을 통제하십니다. 실패하게 하심으로서 결국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대면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로귀환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번제부터 드린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번제를 드림으로서 행해나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한 가운데에 오셔서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